



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 편집장)

불황기 생존전략 전문성 요구된다.

양계업이 그간 양적인 팽창을 통하여 기반을 넓혀왔으나 금융위기라는 돌발적인 악재를 만나 소비위축에 따른 경영 악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닭을 키운다는 간단한 이유만으로 누구나가 쉽게 양계업에 뛰어들어 계란과 육계를 생산해 놓으면 산물 처리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경험과 기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업으로 인식될 만큼 혼미스러웠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왔다해서 신규업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간 규모확대로

누구나가 쉽게 운영해 온 양계업이 소비감소로 만성적인 적자 경영의 조짐을 보이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경영합리화를 꾀해나 가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함께 경험과 새로운 경영관리 기법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는 의미이다.

계속되는 소비증가로 자본이나 배짱만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대출해 주는 자금을 빌어다 양계장을 마음껏 건축하고 입추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소비는 줄고 생산시설은 과잉된 상태여서 당분간은 소비보다 많은 생산량이 양계업자를 어렵게 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양계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양계업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10여년 걸릴 일이(자동화) 불과 2~3년에 마무리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가 패자가 되어 생산과잉의 높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어려움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새로운 위기관리 방법을 개발해 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다 보니 어려운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양계인들이 있다. 양계업은 그들을 중심으로 점차 재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탈락의 길을 걷다가 경기가 호전되면 신규업자의 등장으로 과잉생산의 길이 열려 호황과 불황은 지속되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원리에 철저히 맡겨두면 종전과 같이 눈깜짝할 사이에 양계장이 세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양계업은 서서히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아 내실을 기하면서 일단 소비수준에 맞게 규모는 당분간 위축되는 모습을 취하면서 적자 폭을 누가, 얼마나 더 줄이느냐에 따라 생존서열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계란 출하시 대금결제 생산자는 울며 겨자 먹는다.

매일 출하되는 계란을 매개체로 하여 생산자와 상인간에는 늘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쌍방의 이유는 다 원인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생산자는 영업 개념이 없고 출하 성격을 감안할 때 요구한다기 보다는 주는대로 받아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된다.

한푼의 이익이라도 더 생기면 이익이 커지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인간 본연의 속성을 악용하여 상인들은 늘 생산자의 허점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순간에 기회가 오면 안면을 바꾸는 일이 수 없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의 여지는 없다.

요즈음과 같이 계란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출하시 가격과 실제 계산서를 끊고 대금을 정산할 때와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즉 주는대로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유통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났는데 이 때에 납품하고 받은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자 일부 상인들이 생산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고질적인 후장기에 덤픽은 이전보다 더 성행하고 있다.

대금은 대개 1개월 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쉽게 자기주장을 하기도 어렵거나 다른 상인과 거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계란을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으름짱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 같은 상인들의 횡포는 계란이 과잉될 때에는 더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은 생산자들이 돈 안받고 건네준 계란이 그 만큼 많다는 말로 표현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계란출하에 관해서는 생산자들은 늘 울며 겨자 먹기식이다. 이 같은 병폐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개선은 커녕 더 심화되는 이유는 바로 생산자들의 생각이 합리적이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양계인들은 공익보다 사익을 더 우선시한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느냐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개인들이 이익이 되어야 하는 데도 몇 일을 넘지 못하고 더 손해로 돌아온다. 공익을 무너뜨리면 사익도 보장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셈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공익이란 생산비 개념이다. 영업상 때로는 손해보며 장래를 위해 투자도 하는 법이지만 장래가 없는 홍정을 하기 때문에 제값받기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채란업자들이 계란출하 때문에 구석으로 몰려있다. 그러나 그 대책은 시원한 것이 없다. 손해보며 어렵게 팔 바에야 차라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적극적인 홍보 방법도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

육계 복경기가 남긴 교훈 과목은 금물이다.

금년 복(伏) 경기가 장마로 인해 반짝 경기로 막을 내렸다. 종계업계와 육계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듯 그간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입식을 한 결과가 7월의 사료 생산량이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다.

전년의 86%에 해당하는 물량을 입식하고 가격상승을 기대해 왔던 것이다. 많은 육계인들이 닦고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를 감안하여 소비자들이 먹어 주겠지 하는 기대를 했던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기대는 폭우로 인해 더 큰 실망으로 나타났다. 수해피해로 생산량 감소효과도 있었지만 기온이 낮아져 생산성이 향상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소비위축 현

상과 함께 육계가격은 생산비에 겨우 접근하는 수준에서 복경기를 마감했음을 볼 때 역시 과목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사료생산량으로 볼 때 그저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30% 가까이 소비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그만큼 감소하지 않으면 항상 과잉으로 산물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판에 지난 달에 폭우까지 쏟아져 농작물의 피해가 커서 국내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시장은 더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온이 선선해지는 가을의 문턱이라고 닦고 기 소비에 또 다시 기대를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추석경기도 예년과 같지 않아서 소비활성화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연중 요소 요소에 나타난 소비호재를 어떻게 경제난과 연계해서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습관에 의해서 소비에 낙관을 하여 입추를 하게 되면 커다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무리 구조조정이 유행어가 되었다 하더라도 양계업은 칼로 두부 자르듯 하루 아침에 소비규모에 맞는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과 자진 폐업이 연속되면서 생산기반이 줄어들어야 비로소 구조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누가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느냐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진 동업자들이 뭉쳐서 닦고기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축산 단백질 식품임을 강조하여 소비를 늘려나가려는 의지가 더 필요한 때이다. 그러면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양계